

인쇄하기



全北日報

인쇄

HOME &gt; 사람들

## 최명희문학관, 진안초·원평초서 문학 특강

김태경 | 승인 2019.09.01 19:46



최명희문학관은 지난달 30일 진안초등학교와 김제 원평초등학교를 찾아 '초등학생과 함께 하는 최명희의 콩트 <완산동물원> 읽기'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.

이 행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주간에 맞춰 진행된 것이며, '읽고쓰는연구소'의 이정민 소장과 김도수 시인, 문지연 최명희문학관 학예사가 강사로 참여했다.

진안초와 원평초 학생들은 강사들과 함께 최명희 소설가가 중학교 1학년 때 쓴 콩트 <완산동물원>을 함께 읽고, '우리 집 12가지 띠'를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웠다.

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정민 소장은 "유명 문학인이 어릴 적 쓴 작품을 아이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눈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, 진안과 김제 아이들의 얼굴에 핀 밝고 맑은 웃음꽃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이었다"고 말했다.

저작권자 ©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김태경 기자

---

 인쇄